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 2열왕 4, 42-44

제2독서 : 애히 4, 1-6

복 음 : 요한 6, 1-15

술정이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요한 6, 11)

강 론

사람 손을 빌리시는 하느님

범선배 신부/광주 가톨릭 대학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오늘 첫 독서와 복음에서 하느님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좋은 방법을 들습니다. 즉 엘리사의 제자나 필립보와 안드레아의 노력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나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계셨던 기적을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시더라도 그 실천과정에서 사람이 한몫 거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필립보처럼 이리저리 궁리도 하고, 안드레아처럼 몸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이 턱 없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믿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손을 하느님께 빌려드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고 그렇게 하므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퍼져 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진 재물뿐 아니라 특별한 재능, 좋은 마음, 따뜻한 웃음, 부드러운 표정이나 소리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손을 하느님께 빌려 드립시다. 구체적으로 북한동포 돕기, 교통질서 지키기,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기 등…….

소 리

36년만에

올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한다. 속칭 신한국당 용들의 난무(?)도 끝났다. 그 결과로 금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6년만에 영호남 대결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다시는 ‘우리가 남이야!’라는 정말로 듣기 거북한 말로 편을 나누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처럼 갈라져 살던 시대가 있었기는 하다. 천년도 넘던 삼국시대에 말이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져 사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또 편을 가르려 들다니!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는 뿐만 아니라 역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야당후보 단일화 작업이 남아있기는 해도, 이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은 끝나고 본선이 시작된 셈이다. 조짐으로 보아서 새로운 정치사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역사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경선에서만도 후보자들의 벼랑 끝 장난을 다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우석을 가려내야 한다. 그래서 신뢰회복, 경제안정, 남북통일에 대한 탁월한 의견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는 혁명함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집권세력이 꾸미는 소위 북풍(北風/울해는 黃風?)에 휘말리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甲)

술정이 산책



“세 후보의 표정”

성서의 오솔길

5. 신명기(申命記)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신명기는 제2의 법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훼께 순종하지 않자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뛸씬 더 상세한 '모든 법'(신명 5, 31)을 알려 주셨다.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야훼의 뜻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정착하여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될 것이다. 결국 신명기는 폭넓게 확대된 시나이 계시로 이해되었으며, 그래서 제2의 법전이라는 뜻으로 신명기(申命記)라고 부른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결코 하느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준수하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이는 사랑과 헌신적 신앙을 가질 것을 넘치는 애정으로 간곡히 타이르는 세가지 설교와 부록으로 되어 있다. 모세는 첫째 설교(1, 1-4, 43)에서 광야의 생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둘째 설교(4, 44-28, 69)는 매우 긴 글이다. 모세는 십계명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율법과 규정들을 백성에게 다시 반복한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어기는 사람에게 내릴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셋째 설교(29-30)는 모압에서 맺은 새로운 계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과 죽음 중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새로운 권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사를 한 후,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위임함으로써 설교가 끝난다.

이어서 부록이 나오는데, 첫째 모세의 노래, 둘째 모세의 축복, 셋째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짧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던 그를 칭송하는 글이 나온다. 이리하여 이 장엄하고 매우 흥미로운 책이 끝나게 된다. 신명기의 중심사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도 야훼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기쁨의 샘

소금인형처럼

임 테오필라/복자성당

본당일과 더위를 피해 잠시 몸과 마음을 쉬고 오리라 생각한 나는 2차 교구청 직원과 사무장 사무원 피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막상 나바위 피정의 집에도착하자마자 빽빽한 성서 읽기 시간표에 아-휴 하는 한숨부터 나왔다.

준비된 성가책과 성서를 받아들고 조별로 각 방에 들어가 시작한 성서 읽기, 잘 해 낼 수 있을거라 마음 먹었건만,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몸이 자꾸만 틀어지고 하품만 나왔다. 게다가 쉬는 시간은 왜 그리도 짧은지.

우리 조는 5명이었다. 매 시간 '성서 읽기전 기도'로 시작하여 영광송으로 마치곤 했다. 성서를 읽다가 줄음을 오면 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모두 한바탕 크게 웃기도 하며 늦추지 않고 성서를 읽어나갔다. 지도 신부님의 말씀처럼 높은 산에 오를때 서로 잡아주고 힘들땐 쉬어가면서 꾸준히 정상을 향해 가듯 서로 돋고 이끌어주며 끝까지 잘 해 나갔다.

첫 날 성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읽기에 바빴고,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생각만 하느라고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자 조금씩 성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마지막 날이 되니 성서를 덮기가 아쉬웠다.

성서읽기를 마친 후 한 분이 소금인형 이야기를 해 주셨다. 소금인형이 여행을 떠나 바다까지 오게 되었다. 바다를 처음 본 소금인형이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하자, 바다는 내게 가까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소금 인형은 자신이 점점 녹아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바다 속으로 들어가 결국은 몸이 모두 녹아버렸다. 소금이 바다를 만나 그안에 완전히 잠겼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 잠겨야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짧은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말씀을 찬찬히 되새기며 다시 성서를 읽어 나가야겠다.

이사짐 및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1톤 · 4.5톤 · 5톤트럭
251-2024
☎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ドレス 40만원
(택시도 · 신부화장 부케, 페백웃 무료)
웨딩포토 · 비디오 촬영 원판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고려주단 확장이전

한 복 · 이 불
김 삼 레(소 피 아)
기린오피스텔 옆
☎ (0652) 88-1902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Ken,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김태우(알퐁소), 황진숙(안젤라)
- ☎ 88-7717~8

잠깐

아름다운 소리의 잔치

지난 7월 17일 윤호관에서는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성가경연대회'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의 성가경연대회는 23개 본당에서 약 천여명의 성가대원들이 모여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열기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각 성가대들은 저마다 열심히 연습한 성가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여 특색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 아름다운 화음은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해 주었다. 일부 본당에서는 주임, 보좌신부님, 본당수녀님, 사목위원들까지 참여하여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참가한 모든 성가대들은 경연을 마친 후에도 자리 를 떠나지 않고 다른 팀의 성가발표를 경청하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아 믿음안에서 한가족을 이루는 흐뭇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성가경연대회를 통해 각본당의 전례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신자들 간의 친교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가대회에서 수상한 성당은 다음과 같다.

금상 - 삼천동, 은상 - 창인동
동상 - 나운동, 화산동
장려상 - 숲정이, 중앙, 도통동



교구·제 단체 소식

- 성모기사회 : 8월 2일(토),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8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출발
-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성 바오로 요양 병원 : 7월 28일(월), 오전 11시, 소양 해월리
- 강천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매주일 오후 4시, 강천각 호텔 2층 세미나실
- 장안산 공원(방화동 계곡)미사 : 매주일 12시 30분, 덕산 분교 앞
- 무주구천동 관광 야외 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무주리조트 정문 앞
- 지리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인월공소(☎ 31-0091)
- 8월중 예비신학생 모임 없습니다.
- 이사정 신부 주소 변경 : Pfr. Raphael Lee St. Peter und Paul Kirche Wergässchenstr. 26 8004 Zürich

알려 드립니다.

성요셉 동산(양로원)의 입주 문의 및 접수는 본원의 입주 준비에 필요 한 시간 관계로 97년 9월 1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97년 9월 1일 이전에는 문의 및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셉 동산 경로 수녀회

요십이 (1249) 김병오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97. 9. 8(금) 오후 5시 ~10(일) 오후 1시
- 장소 : 광주 사랑의 씨튼 수녀회 본원
- 주제 : 부르심과 응답
- 회비 : 15,000원(8/6까지 접수)
- 문의 : (062) 571-3004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성소피정

때 : 97. 8. 6(수)~8. 9(토)
곳 : 경남 산청 성심원 교육관
문의 : (02) 865-8174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을 기다립니다.

성바오로 북클럽
회원모집

- 교회출판매체 통신판매
특전 : 10% 할인, 우송료 본사 부담
도서정보제공
주문 : (02) 986-1361
FAX (02) 986-1365

L G 에어 콘

프라즈마 공기정화 에어콘
10개월 무이자+D/C
백제로 빙상경기장 앞
(주) 삼화 공조
☎ (0652) 241-2000

가격 저렴 품질향상

샤넬 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꼬)
정 병 채(실 비 아)
익산시 중앙동 1가 13-10
☎ (0653) 54-9525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돌산갓김치, 깍두기
재래식품 - 된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

- 모임 : ① 전례부, 편집부, 테니스회 - 교종미사 후
② 성심 부녀회 - 30일(수) 전 10시
③ 사목회 상임위원회 - 1일(금) 후 8시 30분
④ 레이저 꾸리아 - 3일(주일) 교종미사 후
 -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한 2차헌금 : 오늘 있음
 - 참회 예절 : 30일(수) 저녁미사 중
 - 병자 방문 : 31일(목) 후 2시부터
 - 유아 세례식 : 31일(목) 저녁미사 후
 - 첫 영성체 교리 : 29일(화)부터 있음. ※ 어머니 모임 - 오늘
 - 도서관 운영 : 책과 비디오 테이프 기증받고 있음.
 - 축하! : 교구 성가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미사 안내 : 8월 중에 초등부 교리와 미사, 중고등부 교리 없음.
 - 감사 : 초, 중, 고등부 신앙학교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 현금 : 금주납입자 - 8명, 소계 - 1,040,000원
 - 금주 전례 : 해설 - 김학덕, 독서 - 박종립(베드로)부부
봉헌 - 김두성(실비노)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 박영춘, 독서 - 김행표(클레멘스)부부
봉헌 - 이정수(암브로시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477,890원 □ 교무금 : 1,866,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2-9262 사목회장 유 춘 응

◎ 냉담교우에게 “술정이”를 전달합시다!

-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 공식미사 후, 2회의식
② 방주회 야외행사 - 전 8시, 성당집결
 - 주간 모임 : 복사단 피정 - 31일(목) 8시 30분 성당집결
 -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식
※ 차주 - 빙첸시오회비 납부일
 - 초등부 신앙(산간)학교와 중·고등부 신앙대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입가정 환경 : ① 김재희(아오스딩) T. 225-1800, 10구역 3반
② 차문호(요셉) T. 72-6264, 성원A 102/605
③ 송경옥(데레사) T. 74-7848, 선수촌A 102/907
④ 조공용(베드로) T. 75-5118, 10구역 2반
⑤ 송훈식(스테파노) T. 72-3633, 선수촌A 101/203
 - 폐품 수집 : 폐지(신문, 박스, 고체), 빙병(매주병, 콜라병 등)을 수집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바람.
 - 성당부지현금 신입 감사! : 익명 10만, 김정환 10만, 방정애 20만, 익명 60만, 익명 10만, 임귀례 3만, 익명 20만, 익명 15만,
손보덕 10만, 누계 - 258, 815,000원(434세대)
 - 독서 : 금주(재벽) - ① 길병호 ② 노재실, 차주 - ① 이철수 ② 문복례
금주(공식) - ① 이석철 ② 오성숙, 차주 - ① 이귀례 ② 김영주
 - 미사 안내 : 금주 - 성조의 모후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656,060원 □ 교무금 : 2,777,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저의 원을 채워주세요.

◎ 새 성전 신축위한 둑주기도 봉헌 : 소계 - 26,261단
누계 - 509,528단

-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① 초등부 신앙학교 교사님, 자모회원님
② 초막공동체 봉사자님, 협조자님, 박용화님
- 금주 전례 : 해설 - 박영식, 독서 - ① 심영배 ② 송화자
- 차주 전례 : 해설 - 김종성, 독서 - ① 황금석 ② 이수자
- 청소 봉사 : 3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802,340원 □ 교무금 : 1,334,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 주님,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저희 원을 채워주세요.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와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주 모임 : ① 대건회, 성모회 - 낮미사 후
② 대의원 야유회 - 낮미사 후
③ 저녁미사 없음
 - 구역방문 : 27일(일) - 평화
 - 음악기초교실 : 29일(화) 후 8시
 - 사목회 : 8월 2일(토) 후 7시 30분
 -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구역(반)장 회의 - 낮미사 후
 - 폐품을 잘 정리하여 가져 오시기 바람
 - 선너머 원고 모집 : 편집분과에서 신자분들의 신앙체험이나 함께 하 고자 하는 마음들을 기다립니다 - 사무실에 접수
 - 청소 봉사 : 8월 2일(토) - 겸손하신자의 모후Pr.
 - 폐품 정리 : 8월 2일(토) - 사랑하을 모후Pr.
 - 금주 전례 : 새벽 - 괴순옥, 낮 - 이영숙, 저녁 - 김영종
 -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 지난주 봉헌금 : 890,000원 □ 교무금 : 2,115,000원
□ 2차 헌금 : 253,61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젠 혁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원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 농민들을 위한 2차헌금 : 오늘 있음.
- 여름 산간학교와 가족야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금주 모임 : ① 전례분과모임 - 27일(일) 10미사 후
② 구역형제회 - 27일(일) 10시미사 후
③ 울뜨레야 - 27일(일) 7시미사 후
④ 홍보분과모임 - 29일(화) 후 8시
⑤ 꾸리아 - 30일(수) 전 10시
⑥ 성모기사회 - 8월 2일(토) 전 10시
 - 차주 모임 : ① 성제봉사자모임 - 5일(화) 전 10시
② 구역봉사자모임 - 6일(수) 전 10시 30분
 - 금주 성서 통독안내 : 신약복습 - 요한복음
 - 선교분과에서는 쉬고있는 교우님들께 효자월보와 주임신부님의 서 간문을 발송했습니다. ※ 그들이 하루빨리 성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표양과 관심을 보입니다.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 개나리A 구역
 - 본당 발전현금 : 권영식(요한) - 오만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28,150원 □ 교무금 : 2,262,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원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4,990단,
누계 - 768,035단

◎ 성전신축 2차헌금 : 오늘 있습니다.

- 금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Cu.,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1일(금) 10시미사 후
 - 초등부, 중고등부 신앙학교와 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종합교리 : 통신교리 수료하신 분들과 예비신자 교리를 마치신 분들은 종합교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8월 1일(금)~8일(금) 후 8시~9시
 - 2차 신축현금 신입액 : 누계 - 5억 5천7백4십6만원
 - 8월 성당청소 안내 : 월요일 - 인자하신 모후, 하늘의 문
토요일 - 친상은총의 모후
 - 차주 모임 : 천주의 모친Cu.,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
자모, 성모, 성심회
 -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① 민병환 ② 이기순
봉헌 안내 - 최규화, 이준순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① 김용만 ② 김은숙
봉헌 안내 - 황근용, 이후동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773,530원 □ 교무금 : 2,958,000원